

Japan Weekly Digest

2012. 9. 22 ~ 2012. 9. 28

① 주간 경제 초점

- 민·관이 협동, 일본 반도체 최후의 보루로서 르네사스 사수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경제산업성, 하청 중소기업들간 연대강화 지원책
- 유기EL 등의 분야에서 한국 대기업과 일본 중소기업간 협력

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① 주간경제초점 : 만관이 협동, 일본 반도체 최후의 보루로서 르네사스 사수

□ 산업혁신기구와 기업연합에 의한 공동 출자

- 르네사스엘렉트로닉스를 일본 반도체 최후의 보루로 삼아, 민·관 일체가 되어 사수에 나섬. 토요타자동차, 파나소닉 등 일본의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정부계열펀드인 산업혁신기구와 공동으로 1,000억엔 이상을 공동출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 이미 교섭중인 미국계 펀드사에 대한 대항방안을 만들어 금년중 주식의 과반 취득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 르네사스는 자동차나 가전을 제어하는 마이콘(MCU)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기간부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민·관이 협동하여 사수하겠다는 각오임.
- 출자기업으로서는 닛산자동차, 혼다, 캐논, 파나 등이 거론되고 있음. 자동차 부품메이커에서는 토요타 계열의 덴소, 혼다 계열의 케힌 외에 독일의 보쉬 등에도 출자를 요청하고 있음.
- 제 3자 할당증자 방식으로 산업혁신기구와 합쳐 1,000억엔 이상의 출자로 르네사스를 공동매수할 방침임

□ 일본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제산업성의 구상

- 르네사스 재건책을 둘러싸고, 미국 투자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 Kohlberg Kravis Roberts)가 8월말 르네사스에 약 1,000억엔의 출자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KKR이 사업재편 등에 착수하는 경우 안정적인 마이콘 조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음. 안정적인 부품조달망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 일체의 지원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함.
- 만일 르네사스가 KKR산하에 들어가 가격정책을 재검토하게 되면, 자동차 등 제품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자동차메이커 등 주요 고객들사이에서는 하청에 안주해온 르네사스가 국제시황에 맞추어 마이콘 등의 가격인상을 요청해올 것에 대한 경계도 있음.
- 경제산업성도 마이콘을 방치하면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고 보고, 여름부터 민·관 일체의 지원방안을 구상, 자동차나 전기업체에 공작을 벌임. 반도체산업의 활성화를 구상하는 민·관 펀드의 산업혁신기구가 물밑에서 KKR에 대한 대항방안을 검토
-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르네사스의 재정재건에 망설이고 있던 자동차업체도 9월 들어 KKR에 의한 매수가 현실감을 띠게됨에 따라 위기감을 나타냄.

- 르네사스는 디지털가전 등에 탑재하는 고기능반도체 시스템 LSI의 부진으로 7기 연속 적자를 시현. 2012년 3월 결산기에도 1,500억엔의 최종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 박형 TV나 녹화용재생기 등 음향영상기기용 고기능반도체인 시스템LSI의 부진이 적자의 주된 원인이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마이콘에서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
- 이 때문에 약 5,500명의 조기퇴직, 19개 공장의 매각·폐쇄에 의한 대규모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스템LSI는 후지쯔, 파나소닉과의 사업통합을 교섭중임.

□ 대규모 구조조정에 이어, 자기자본 강화를 위한 출자 절실

- 주주인 전기 3사와 주력 거래은행에 의한 약 1,000억엔의 융자로 구조조정비용은 융통했으나, 거액의 손실 계상으로 자기자본이 급감. 채무초과상태를 피하기 위해 자기자본 강화가 절실
- 금융기관들은 KKR에 의한 지원을 일단은 받아들일 방향이었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이번 출자제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 KKR은 르네사스 이사진의 총퇴진을 요구하고 있음. 출자조건으로서 금융기관이나 주주에 추가융자 등을 요청하고 있는 점도 지원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고 있음.

□ 과제

- 르네사스가 자동차용 마이콘 분야에서 세계시장점유율 1위이면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체질로 빠지게 된 원인의 하나는 각사가 특주품을 발주, 가격인하요청을 해왔기 때문임.
- 미국의 대형투자펀드 KKR이 르네사스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경영개선책으로 양산효과가 예상되는 반도체 생산에 특화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대형수요기업에 의한 지원은 경영부진의 원인이 남아있는 채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각 분야에서 한국기업이나 중국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데는 일본 부품메이커의 매수나 헤드헌팅에 의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기업연합에 의한 르네사스 지원이 기술유출에 제동을 거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임.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경제산업성, 하청 중소기업들간 연대강화 지원책

- 경제산업성이 내년부터 하청 중소기업들간 연대를 강화하는 지원책을 실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보조. 단일 기업이 대응할 수 없는 다양한 수주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주안점을 둠.
 - 엔고,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의 기한만료 등에 대비하여, 고용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력을 강화
 - 시제품이나 기계부품, 소재 등의 제작에 종사하는 30~100사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모여 결성하는 「모노즈쿠리 연대그룹」에 대하여 경제산업성이 운영비나 공동수주를 위한 시스템 도입비용 등을 보조.
 - 다수의 기업들에 의한 공동시작이나 일관된 생산체제 정비, 공동 시장개척, 나아가 통일된 품질 유지나 거래 리스크 관리도 요구
 - 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0개 정도의 그룹을 지원. 대상 기업은 1000~2000개사로 예상. 하청중소기업진흥법도 재검토, 중소기업간 연대를 중요한 지원책으로 설정
- 대기업 제조거점의 해외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신흥국들과의 비용경쟁도 심화되는 가운데, 하청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여의치 못하고 있는 것이 배경임.
- 한편으로는 타사와의 연대로 기술개발이나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10%정도에 불과. 일본 정부로서는 기업간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대내외적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비축, 하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임.
 - 경영효율화도 지원. 대기업의 OB 등 생산기술의 전문가를 파견,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2~3배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임.

□ 유기EL 등의 분야에서 한국 대기업과 일본 중소기업간 협력

- 액정백라이트나 차세대 패널로서 기대되고 있는 유기EL 등 박형 텔레비전 분야에서 한국 대기업의 요청을 받아 일본 중소기업이 실증시험 등을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당초 제휴하기로 했던 일본측 대기업이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함에 따라, 일본 중소기업측이 대체 거래처로서 한국 대기업과 제휴

〈사례 1〉

- 유기 EL을 생산에 응용, 광학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일본 오프트디자인(주)은 한국의 텔레비전 관련 대기업으로부터 발광다이오드(LED)의 액정백라이트 개발을 의뢰받음.
- 동사는 LED광을 특수한 반사판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확산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1미터 4방의 조명으로도 LED 1개로 표면을 균일하게 비출 수 있음.
- 액정 백라이트에 응용하면 LED 사용수를 대폭 줄일 수 있어, 텔레비전의 경량화나 비용절감이 가능함. 현재 한국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 금년 중으로 결론이 날 예정임. 대만기업과도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례 2〉

- 동경공업대학 벤처기업인 제타(주)는 나노파이버를 저비용으로 대량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고분자 수지에 고전압을 가해 나노파이버를 짜는 종래방식을 개량하여 생산성을 기존기술의 1만배로 높임.
- 동사는 유기EL소자를 나노미터 크기의 미립자로서 기판에 붙이는 공정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일찍부터 관심을 보인 한국기업이 조만간 기술평가를 위해 동사를 방문할 예정

〈사례 3〉

- 반도체 가공기술이 전문인 필테크(주)는 대기중 유리기판에 실리콘 등 박막을 만드는 장치를 개발. 진공장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가격이 1/10정도로 하락. 박막태양전지나 유기EL패널 등의 생산에 활용가능. 한국 LG디스플레이로부터 동 기술에 관한 자료 송부요청이 있음.
- 동 기술은 일본의 전기관련 대기업의 요청으로 개발에 착수, 당초에는 독점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상대 대기업측의 경영부진으로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게 됨.

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

일본기업	발표일자	업종	대상국가/기업	사업형태/내용
미쓰비시상사	2012.9.22	도시개발	싱가포르/셈코 프디벨로프먼트	업무제휴/도시개발 관련 공동 프로젝트 선정
JOGMEC	2012.9.23	희토류	말레이시아	해외자원개발/희토류채굴사업 화 가능성 조사
히타치제작소	2012.9.23	화력발전소 건설	폴란드	건설수주/보일러, 터빈, 발전 기 등 공급, 수주규모 약 1,500억엔
스미토모고무	2012.9.22	타이어	터키	직접투자/승용차·경트럭용타이 어생산공장 설립, 출자비율 80%
ALSOK	2012.9.24	종합경비	한국, 중국	직접투자/서울에 주재사무소, 중국에는 현지자회사 형태로 거점 신설
웨미리마트	2012.9.24	유통	태국/센트럴 그룹	업무제휴/점포수 확대
토시바미쓰비 시시스템	2012.9.25	전력변환기	중국, 인도	직접투자/태양광발전소의 기 간부품인 전력변환장치를 현 지생산
후루카와전기 공업, 쿠지크라	2012.9.25	송전선	인도	직접투자/절반출자로 송전선 공장 설립, 투자규모 100억엔 전후
토요다통상	2012.9.26	리튬	아르헨티나	자본제휴/호주의 광산회사 오 로코브레사와 합작회사 설립, 권익의 25%취득
관서페인트	2012.9.26	자동차용 도료	태국	직접투자/공장 신설, 투자규모 40억~50억엔
미쓰비시상사	2012.9.26	디젤발전사업	요르단	합작제휴/한국전력공사, 핀란 드 와르치라사와 제휴, 총사업 규모 700억엔, 출자비율 35%
쇼와전공	2012.9.28	알루미늄 합금 주조	말레이시아	직접투자/공장신설, 투자규모 20억엔 이상, 전액출자
후루카와 스카이	2012.9.28	알루미늄판	태국	직접투자/생산능력 증강, 추가 투자규모 100억엔

* 자료: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

4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1) 『동아시아광역 FTA와 TPP의 경합』 아시아경제연구소, 9월22일

*출처:<http://www.ide.go.jp/Japanese/Publish/Download/PolicyBrief/Ajiken/pdf/012.pdf>

(2) 『일·중관계의 새로운 움직임 : 일본기업의 대중국투자전략 방향』 국제협력은행, 9월25일

*출처:http://www.jbic.go.jp/ja/report/reference/2012-050/jbic_RRJ_2012050.pdf

(3) 『서플라이어 중소기업의 사업전개방향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경제산업성, 9월26일

*출처:<http://www.meti.go.jp/press/2012/09/20120925002/20120925002-5.pdf>

(4) 『일본의 수출동향과 금후 전망』 미즈호증권리서치앤컨설팅, 9월27일

*출처:<http://www.mizuho-msrc.com/dynmc/gcnt.php/DL0000007099/01/01>

(5) 『유신8책은 일본을 구할 수 있는가』 일본종합연구소, 9월27일

*출처:<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yumoto/pdf/6329.pdf>

(6) 『최첨단 모노즈쿠리를 지탱하는 일본의 반도체제조장치 산업 : 과제와 전망』
일본정책투자은행, 9월28일

*출처:http://www.dbj.jp/ja/topics/report/2012/files/0000011128_file2.pdf